

남동발전, 삼성전자 태양광발전 가동

한국남동발전(대표 장도수)은 충남 아산 삼성전자 탕정사업장 LCD모듈동 옥상에 12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갔다고 6월27일 발표했다.

탕정 태양광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이 삼성전자 옥상을 임대해 15년간 운영한 후 설비를 삼성전자에 이전할 예정이다.

삼성에버랜드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했으며,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최신 태양광 모듈이 적용됐다.

총 46억원이 투입된 태양광 발전소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로 공장 지붕에 구멍을 뚫지 않고 모듈을 설치하는 무타공 공법을 적용해 지붕 누수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자동살수 시스템, 공장 지붕 하중 감소를 위한 경량화 구조물 등 신기술이 도입됐다.

<화학저널 2011/06/27>